



제107주년 3·1절... “우리 가슴에 피어난 독립의 꽃”

지난달 27일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찾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독립국을 선언하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벽면을 꾸미고 있다. 이번 행사는 3·1운동부터 독립선언에 이르는 과정을 다채로운 전시와 문화 행사로 꾸며졌다. [사진부=이종원·박미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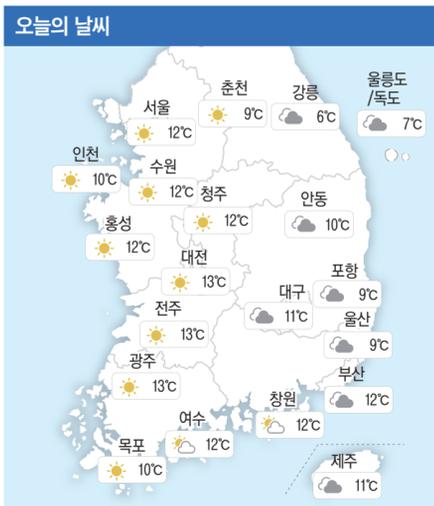


정월대보름
부럼깨기 체험 행사
2.28. (토) 11:00~16:00
인헌센터 1층 로비



12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을 앞둔 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호두와 땅콩, 밤 등 제철 부럼이 쌓여 있다. '가장 큰 보름'이라는 의미의 정월대보름에는 한 해 동안 피부 부스럼을 예방하고 치아 건강을 기원하며 딱딱한 견과류를 깨우는 '부럼 깨기' 풍습이 전해 내려온다.

343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국가유산진흥원에서 '2025년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졸업작품전'이 열려 관람객들이 수강생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6일까지 진행되며, 예비 공예인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 265점을 만나볼 수 있다.



오늘의 운세

<p> 쥐띠 </p> <p>48년 내 힘으로만 하려는 것은 하수(下手). 60년 내부 결속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 72년 지금 추진하는 일은 꼼꼼히 따져 보라. 84년 소신과 경청 사이에서 결정장애. 96년 라이벌이 있어 발전이 있다.</p>	<p> 용띠 </p> <p>52년 물병투자는 위험을 수반한다. 64년 해주고도 욕먹을 수 있다. 76년 누워서 침 뱉기는 막아야. 88년 활동 반경을 무단히 넓혀라. 00년 친화력이 중요한 덕목.</p>	<p> 원숭이띠 </p> <p>56년 말간 일은 간섭하지 말라. 68년 외로운 사람끼리 뭉쳐야. 80년 과거에 연연하면 마음만 아프다. 92년 금전거래로 사람을 잃을 수도. 04년 질문을 잘하고 대답도 잘해야.</p>
<p> 소띠 </p> <p>49년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된다. 61년 난처한 상황에 부닥쳐도 희망이 있다. 73년 손실은 일시적이다. 85년 밝은 생각이 좋은 운을 불러온다. 97년 잠깐의 쾌락은 절제함이 낫다.</p>	<p> 뱀띠 </p> <p>53년 사람을 쓸 때는 내력을 알아보라. 65년 내면도 중요하고 외양도 중요하다. 77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89년 사람으로 인한 고민이 가장 크다. 01년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p>	<p> 닭띠 </p> <p>45년 무거운 짐도 종착지에 왔다. 57년 묵묵히 내 길 걸 가자. 69년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라. 81년 상대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93년 우선 내부 분열을 막아야 한다.</p>
<p> 범띠 </p> <p>50년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62년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신중할 처신. 74년 리스크가 크다면 한번 더 생각하라. 86년 눈에서 보석을 줍는 듯한 행재수. 98년 예의범절을 지키면 시비수도 피해간다.</p>	<p> 말띠 </p> <p>54년 의심이 걸릴때까지 확인 또 확인. 66년 스스로 규칙을 정해 몸관리 하기. 78년 동기부여 시키는 것이 뒷사람의 능력. 90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좋다. 02년 현실 안주가 독(毒)일 수 있다.</p>	<p> 개띠 </p> <p>46년 호기심으로 새로운 세계 두드려야. 58년 기존의 방식은 낡은 방법일 수도 있다. 70년 프로 정신으로 난국을 타개하자. 82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 94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라.</p>
<p> 토끼띠 </p> <p>51년 굳은 일을 마다않는 희생정신 필요. 63년 기분 좋은 지출이 있을 수 있다. 75년 요령 피우지 않는 성실함이 인정받는다. 87년 공정과 상식으로 조직관리 필요. 99년 답답할 때는 일에 매진하라.</p>	<p> 양띠 </p> <p>55년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 67년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79년 오늘 게으르면 내일은 더 힘들다. 91년 삶은 전쟁터. 03년 상대방이 화를 낼 때는 일단 피하라.</p>	<p> 돼지띠 </p> <p>47년 어려운 일을 쉽게 푸는 것이 경륜. 59년 힘들었을 때가 실은 발전하고 있는 것. 71년 화합에 노력해야 한다. 83년 질문 속에 답이 있다. 95년 발상의 전환으로 기대감.</p>

제이 이원오 선생(제이작명철학원 원장) 02) 401-7106